2022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정리=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특별강연

종교 간 대화, '평화 증진' 첫 걸음

'포용성 증진을 위한 UAE의 노력'

최초로 포용 내각부처 신설
2019년 '포용의 해'로 선포
공공교육 내에 포용성 강조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 UAE 대사

"아랍에미레이트(이하 UAE)는 지난 2019년을 '포용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그해 2월에는 전례 없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이 이뤄졌습니다. 이것은 종교 간 대화가 평화, 번영 및 상호 이해를 위한 수단이라는 UAE의 확고한 신념이 구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 UAE 대사는 9월 23일 열린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에서 '포용성 증진을 위한 UAE의 노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 강연에서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대사는 UAE가 펼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포용 정책을 소개했다.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대사는 UAE 정부가 2016년 세계 최초로 포용성을 다루는 내각부처를 창설했음을 소개했으며, 2019년을 '포용의 해'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대사는 "포용의 해 선포에서는 지역사회의 포용성에 초점을 맞춰 여러 문화들을 통한 가치 증진과 응집력 있는 사회를 촉진하기 위한 전국 커뮤니티센터 활성화를 표방했다"면서 "학교 및 대학 전반에 걸친 교육 시스템 내에서 포용성의 가치에 입각한 교육을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UAE는 200개 이상 민족들이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 문화 행사들을 진행했다.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대사는 "이 선포를 통해 UAE는 세계 다른 국가들이 따를 수 있는 포용의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면서 "다양한 문화, 종교, 문명 간의 포용과 대화를 아우르고 강화하는 일련의 시도와 프로젝트를 통해 UAE의 위상도 강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대사는 2019년 2월에 이뤄진 프란치스코 교황의 UAE 방문도 소개했다. 방문기간 동안 프란치스코 교황과 이란의 종교 지도자(Grand Imam) 셰이크 아흐메드 알 타예브(Sheikh Ahmed Al Tayeb) 간의 만남이 이뤄졌고, 이들은 '세계평화와 공존을 위한 인간 형제애에 관한 문서(Document on Human Fraternity for World Peace and Living Together)'에 서명했다. 그는 "종교 간 대화가 평화, 번영 및 상호 이해를 위한 수단이라는 UAE의 확고한 신념이 구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마음 이루는 길, 우주 살리는 길"

기조 강연 '만물만생과 통하는 한마음'



혜근 스님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장

"내가 자석이 되면 못도 자석이 되듯이 저절로 주변을 나아가 지구 생명체, 더 나아가 지구를 비롯한 전 우주를 살리는 길이 작은 나인 내 마음을, 근본자리인 주인공과 한마음 이루는 길입니다."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장 혜근 스님은 9월 23일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에서 '만물만생과 통하는 한마음' 주제 기조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혜근 스님은 스승이신 대행 선사와의 첫 만남을 소개하며, 강렬했던 선사와의 기억을 술회했다. 1986년 암투병 중인 부친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올린 정성금을 되돌려 받으려고 선사를 찾은 혜근 스님은 "도인이 왜 존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대로 병·고·액·난에 허덕이고 있는데요"라고 물었다. 이에 대행 선사는 "네 몸에 죽고 사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 알면 지금 네가 궁금해 하는 것을 안다"라고 답을 했다.

혜근 스님은 선사의 강렬한 눈빛과 답변에 대해 "당시 기억을 돌이켜보면 '어떻게 장님이 눈뜬 자를 알아볼 수 있었겠나'"라고 회고했다.

혜근 스님은 "주인공이 큰 에너지의 자석이라면 못도 와서 자석이 된다. 관하는 것이 그것이다"가 대행 선사 가르침의 요체임을 강조했다. 주인공을 진실히 믿기만 해도 그대로 자석에 붙은 못이 되어 저절로 자석이 된다는 것이다.

"장님의 지팡이가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인생길에선 주인공"이라고 밝힌 혜근 스님은 "내 삶을 이끄는 것이 내 마음의 주인이며 전체의 주인인 '주인공'이다. 이러한 마음자세로 살면 삶 자체가 주인공과 한마음 되는 과정이니 고가 아닌 수행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삶의 모든 경계를 맡기며 가는 것이 우주의 근본, 만물만생의 근본인 주인공과 하나 되는 길이며 모두를 살리는 자리이타의 길"이라며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마음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과정으로 삶을 사는 것이 마음을 살리는 길이며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세션1 현대사회와 종교의 실천적 역할

스스로 빛이 되어라

우리를 통합하고 분열시켜 온 팬데믹



브렛 샤프스
브리검영대학 국제법종교연구센터장

브렛 샤프스 브리검영대학 국제법종교연구센터장은 9월 23일 열린 한마음과학원 국제학술대회 세션1에서 '우리를 통합하고 분열시켜 온 팬데믹: 뉴노멀 시대에 상호연결과 화합을 창출하기 위한 미국과 후기성도의 관점'을 주제 발표했다.

샤프스 센터장은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변화를 되짚고 법률적, 비법률적 전략들에 대해 분석했다. 샤프스 센터장에 따르면 '변화 극복의 법적 자원'은 종교 모임과 비종교 모임을 비슷하게 대하는 차별 없는 원칙,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합리적인 종교 활동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합리적 수용 방안을 말한다.

샤프스 센터장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중요했던 것이 비법률적 전략들임을 강조했다.

그는 "비법률적인 것에 대한 예로는 서로에 대해 인내하고, 관용하고, 자제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빛이 되어 빛을 비추고자 노력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어디에서든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옹호하는 정책과 관행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법가, 佛法 전하는 새로운 방편

대행 선사의 '선법가' 활용에 대한 소고



청고 스님
한마음국제문화원 실장

한마음국제문화원 실장 청고 스님은 9월 23일 열린 한마음과학원 국제학술대회 세션1에서 '대행 선사의 선법가 활용에 대한 소고: 현대 한국 사회에서 선불교 가르침을 전파하는 법'을 주제 발표했다.

스님에 따르면 한국 찬불가의 역사는 7세기 무렵 원효대사 시절까지 올라가며 다시 활성화 된 것은 20세기 초엽이다. 1970년 후반 대행 선사는 불이법(不二法), 본래성품(本來性品), 마음공부의 요체 등과 같은 선불교의 본질적인 진리들을 가르치기 위해 '선법가'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선법가 가사의 대부분은 대행 선사가 설한 법문에 나오는 게송(偈頌)으로 이뤄져 있다. 처음에 선법가들은 일요일 정기법회를 마칠 때 합창 형식으로 불려졌고, 점차적으로 선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종류의 공식 행사에서 활용됐다.

청고 스님은 "가르침의 방편으로 노래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한국인의 정서에 잘 맞다"면서 "이 같은 환경은 대행 선사가 선(禪)의 이치를 밝혀주는 노래라는 뜻의 '선법가'를 처음 개발하게 된 배경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션2 생명 위기를 통한 미래의 성찰

코로나19가 가져온 종교적 명암

팬데믹과 죽음의 그늘 속 영적 보살핌 필요성



만프레드 후터 본대학 교수

만프레드 후터 독일 본대학 교수는 9월 24일 열린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세션2에서 '팬데믹과 죽음의 그늘 속 영적 보살핌 필요성'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나타난 종교적 변화에 대해 분석했다.

후터 교수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종교 공동체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폈다. 그에 따르면 '신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집합 금지 조치를 무시한 채 대면 종교 의식을 지속한 집단이 있었고, 반대로 규제를 이행하면서 가상의 매체를 이용해 대안적인 집회 방식을 도입한 종교 공동체도 있었다. 이 중 대면 종교 의식을 지속한 종교단체는 집단 감염을 일으켰고, 이는 대중 사이에 '종교'에 대한 비판이 불거지는 계기로 작용했다.

후터 교수는 "진보적 성향의 종교 공동체는 당국의 규제를 따르고 지지하는데 적극적이었다"면서 "'근본주의' 단체들은 코로나19 위기를 죄 많은 세상에 대한 신의 징벌이라는 종말론적 상징으로 간주하거나 인간을 구제하는 신성한 초자연적 힘을 믿으며 공적 규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이후 보편화된 온라인 비대면 종교의식은 신앙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과 소셜미디어의 활용은 학습 영역에서 종교생활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게 후터 교수의 설명이다.

하지만, 가상 모임 중 '실제 접촉'과 직접적인 사회적 상호 작용의 부재로 종교의식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은 부정적인 측면이다.

이와 함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어렵게 된 점도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후터 교수는 "종교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정상적인' 과정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거의 중단됐다"면서 "코로나19는 죽음에 대한 이별 의식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으며, '존엄한 죽음'을 약화시키거나 사라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세션3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가치

가족, 상호 탁마의 수행공동체

대행 선사의 가르침에 비춰 본 수행적 관점에서의 '가족'의 의미



정상만 교수
파평중학교

정상만 파평중 교사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에 비춰 본 수행적 관점에서의 가족의 의미'를 9월 24일 열린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했다.

대행 선사는 가족이라는 인연이 수억겁의 세월 동안 윤회하면서 잠시 시절 인연을 만나 함께 하게 되는 것일 뿐 이번 생에서의 유일회적(唯一回的)인 인연이 아님을 통찰한다. 정 교사는 "대행 선사는 끊임없이 안으로 놓는 수행을 권면하는데 사실상 이러한 수행의 기회를 가장 빈번하게 제공하는 곳이 바로 가족이라는 공동체"라며 "대행 선사가 가르친 가족은 그대로 서로가 서로를 거울처럼 비추며 절차탁마하는 수행공동체였다. 가족 구성원은 서로에게 최적의 도반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윤리 형성 어떻게

새로운 실천, 새로운 가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디지털 윤리의 관점



올리버 쮈르너 슈투트가르트 미디어대학 교수

올리버 쮈르너 슈투트가르트 미디어대학 교수는 '새로운 실천, 새로운 가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디지털 윤리의 관점'을 주제 발표했다.

쮈르너 교수는 찰스 에스의 저서 〈디지털 미디어 윤리(Digital Media Ethics)〉를 통해 △결과주의 △의무론 △도덕 윤리 관점으로 디지털 윤리를 분석해냈다. 그는 결과주의적 접근을 통해 어떤 디지털 미디어 매체를 이용함에 있어 상황이나 맥락에서 초래하는 결과에 근거해 판단할 것을 조언했으며, 의무론적 접근을 통해서는 행동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약속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도덕 윤리적 관점을 통해서는 일상적인 실천에서 '탁월함'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이고 학습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으로 나아감을 강조했다.

대행 선사 가르침으로 미래 대비

2019년 팬데믹,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분석한 21세기의 패러다임



구스따보 아드리안 델 벤또 변호사
아르헨티나 국가 의회 하원

아르헨티나 국가 의회 하원 소속 구스따보 아드리안 델 벤또 변호사는 '2019년 팬데믹,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분석한 21세기의 패러다임'을 주제 발표했다.

연구 논문에서 델 벤또 변호사는 지난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의 패러다임을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통해 분석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공공정책 △새로운 가정생활 △노동 부문의 변화 △생태계 변화를 살피고 어떻게 변화에 대비할 것인지를 살폈다.

델 벤또 변호사는 "선사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최근 일어난 일들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모든 생명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적 결속으로 코로나 파고 넘자

코로나19 어려운 문제, 어려운 해결책



던스턴 로비두 수사
세인트 앤셀름 수도원

미국 세인트 앤셀름 수도원의 던스턴 로비두 수사는 9월 24일 열린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세션2에서 '코로나19 어려운 문제, 어려운 해결책'을 주제 발표했다.

로비두 수사는 △호흡기 질환으로서 코로나19 상황 △전문가들 간의 의견 차이 △의무 예방 접종의 도덕적 문제 △백신 사용의 장기적 영향 △도덕적 이슈로서 백신의 보편화 △사회학적 함의와 혼란 등 총 6가지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비두 수사는 코로나19라는 파고를 넘기 위한 방안으로 '결속'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작은 집단들과 경제·가정·종교 생활을 하면서 가까운 결속이 생길 수 있다"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중심적인 영적 원칙을 찾거나 함양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혁신가 한스 큉·대행 선사

글로벌 위기 극복 위한 한스 큉과 대행 선사 제안 비교



혜유 스님
한마음 아카데미 연구실장

한마음 아카데미 연구실장 혜유 스님은 9월 24일 열린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세션3에서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한스 큉과 대행 선사 제안 비교'를 주제 발표했다.

혜유 스님은 신학자 한스 큉과 대행 선사의 생애를 살피고 유사점을 고찰했다.

특히, 한스 큉의 '세계윤리'와 대행 선사의 '오공(五空)' 사상을 비교했다. 스님은 "한스 큉의 세계윤리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세계윤리연구소는 현재 각 학문분야에서 세계윤리와의 융합을 연구하고 있다"며 "대행 선사의 독특한 '한마음주인공 관법' 수행으로 누구나 쉽게 내면의 불성을 자각하고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구촌 평화와 밀접한 '둘 아닌 도리'를 통한 자비와 공생의 가치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대행 선사 '우주적 음악' 느껴야

대행 선사 마음의 소리 없는 울림: 리듬과 패턴



김재영 교수
서강대 종교학과

김재영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는 '대행 선사 마음의 소리 없는 울림: 리듬과 패턴'을 주제 발표했다.

김 교수는 대행 선사의 삶과 자료들에서 근본적인 변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순간이나 일련의 사건들에 주목하고 세 가지 패턴을 확인했다. 첫 번째는 종교적 회심(回心)이다. 김 교수는 "고독한 생활 속에서 대행 선사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다른 의미와 존재의 지평을 마주하기 시작하면서 심오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두 번째 변혁적 변화는 '도덕적 회심'이며, 세 번째는 지성적 진정성에 가깝다. 김 교수는 "대행 선사는 종교적 회심과 도덕적 회심 모두에 존재하는 일종의 초월성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대행 선사의 우주적 음악이라는 하나의 웅장한 관현악 연주를 보고 들어야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